

10 오피니언

사설

코로나19로 무너진 학생 사회, 선거로 복구할 때다

선거가 한창이다. 학교 밖도 마찬가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혼란스러웠던 미 대선의 결과는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했다. 바이든의 선언은 그의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대선 기간 줄곧 ‘미국의 정신을 복구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이런 그에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2016 미 대선의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경계한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은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역대 후보 중 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

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역전 승리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도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학교 상황은 정반대다. 총학생회(총학)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낮은 투표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인성(생물학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혹시나 선거분위기가 안 나서 전만큼 투표율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문제는 그의 걱정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학생 자치활동에 불가피한 제약들을 가져왔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약을 수정 이행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당초 제시한 공약들을 최대한 실천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울캠퍼스 총학 ‘무빙’은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34%를 이행

하는 데 그쳤다. 국제캠퍼스 총학 ‘워쿠맨’은 이보다 조금 나은 48%를 이행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건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총학이 학생 자치를 이뤄낼 것이란 기대감은 한없이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나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발을 들이지 않는 학생들은 총학을 마주할 일도 없다. 그들은 총학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턱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총학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최 위원장의 노파심은 현실이 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투표를 ‘건너뛸’ 일은 아니다. 기계적 선호도에 따라 투표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선거는 언제나 중요하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돌

아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학생 사회는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력함에 동조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학생 사회를 대변하는 총학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때다.

마치 바이든의 선언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학생 사회를 복구하자”고 말하는 총학을 지지해주어야 할 일이다. 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으려면 투표를 통해 조직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은 내년에도 비대면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잃어버린 1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빅데이터로 본 경희

진실을 보는 눈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쉽게 확산되고 재생산된다.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다. 데이터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보사 기자가 된 이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 학생이 많지 않으니 학교가 운영이 되는지, 사람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학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아주 많은 정보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이것만큼은 깨달았다.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그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며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 독자를 위해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그 과정을 도울 것이다.

이제는 정보의 수용뿐만 아니라 생산도 편리해졌다. 누구나 SNS를 통해 정보의 생산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저 장난이든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 가짜



만평 진실의 문아 열려라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세시봉

공정의 시대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유명가수 흥진영 씨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초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흥 씨를 직접 가르쳤던 조선대학교 A 전 교수가 “흥 씨의 논문은 99.9% 가짜이고 같은 학교 교수였던 아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흥 씨의 아버지가 해당 대학의 명예교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일명 ‘부모찬스’를 사용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의 검사 결과, 흥 씨의 석사 논문은 74%의 표절률을 기록했다. 전체 556개 문장 중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문장은 124개였고,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에 달했다. 흥 씨의 표절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자, 흥 씨가 출연 중인 SBS ‘미운우리새끼’와 관련해선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제작진은 논란 이후에도 흥 씨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시청자의 빙축을 샀다.

이런 논란들에 흥 씨는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라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 대목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과거 흥 씨는 ‘박사 출신 가수’라는 별명과 함께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자세한 설명이나 확인 없이 ‘학위 반납’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옛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표절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시비를 밝혀야 할 것이 있고, 표절이 사실이라면 응당 ‘학위 취소’가 마땅하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이 중요한 요즘이다. 유례없는 취업난과 무한경쟁 사회에서 이는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걸어서 산을 오르기로 약속했는데, 누군가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느낄 감정은 분노다. 부정을 쉬쉬하고 눈감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조선대학교는 흥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파문이 커지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흥 씨의 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부디 올바르고 공정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